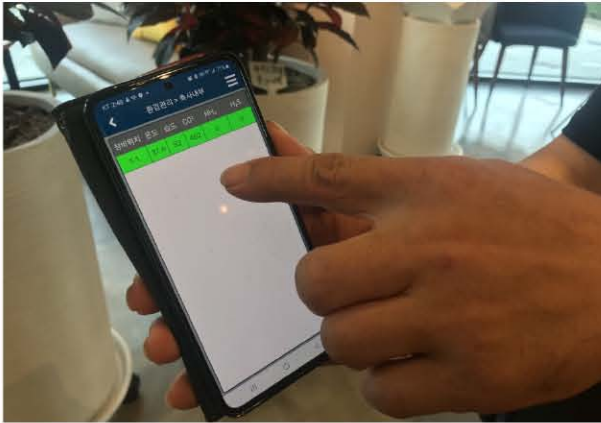


“오리고기가 치킨만큼 인기 얻는 그날까지...”

부안서 오리 키우는 귀농 10년 차 부부

김창수·주은주
소망행복농장 대표





‘여유 있는 삶’ 찾아 귀농 결심 초기 투자비용 적은 오리 선택

김창수·주은주 부부는 직장에서 만났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 여유를 찾자는 생각에 아내가 먼저 귀농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작물을 키울 생각이었다. 품목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 오리 사업을 추천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판로가 확실하다는 이유였다.

오리를 키우기로 정한 후 귀농 지역을 물색했다. 오리농장에는 바닥에 깔 왕겨가 다량 필요하다. 쌀이 많이 나는 호남 지역은 왕겨 수급이 쉬울 것이라 판단했다.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다 부안을 선택했다. 연고가 없는 지역이지만 도전했다.

축산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부부는 적극적으로 교육 기회를 찾아다녔다. 경음, 고창, 부안의 오리 농가를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다.

새끼오리 42일간 키워 납품 스마트폰으로 농장 약취 관리

새끼오리를 데려와 성체로 키워 출하하는 게 부부의 주 업무다. 부부는 현재 ‘주원산오리’에서 새끼오리를 납품 받고 있다. 새끼오리는 6주(42일)면 성체가 된다. 갓 부화해 농장으로 오는 새끼오리는 48~56g 정도다. 이들

을 평균 3.5kg인 오리로 키워낸다. 이 과정을 1년에 6번 가량 반복한다.

부부는 해가 뜨자마자 농장에 간다. 오리들이 이동할 수 있게 개폐기를 열어주고 살핀다. 물과 사료를 잘 먹는지 확인한다. 적당한 활동량을 위해 하우스를 돌며 오리를 몬다. 몸집이 점점 커지면 옆 하우스로 수량을 나눈다. 축사 내부의 온도와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방을 넓히는 개념이다.

약취 방지에도 힘을 쏟는다. 처음엔 오리 농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냄새가 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거부감을 갖는 주민들도 있었다. 근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취 저감에 노력을 기울인다.

부안군청과 ICT 약취 저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암모니아가 일정 수치 이상 넘어가면 자동으로 살균제를 분사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온도, 습도, 암모니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수치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사료에 생균제를 배합해 오리의 장을 튼튼하게 한다. 생균제는 소속 회사인 주원산오리로부터 제공받는다. 오리가 건강하니 번도 좋아서 약취가 덜 난다. 육질도 더 부드럽고 맛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신경을 쏟는 것은 질병관리다. 오리는 성장 기간이 짧기에 호흡기 질병, 장염 등 병에 걸리면 복구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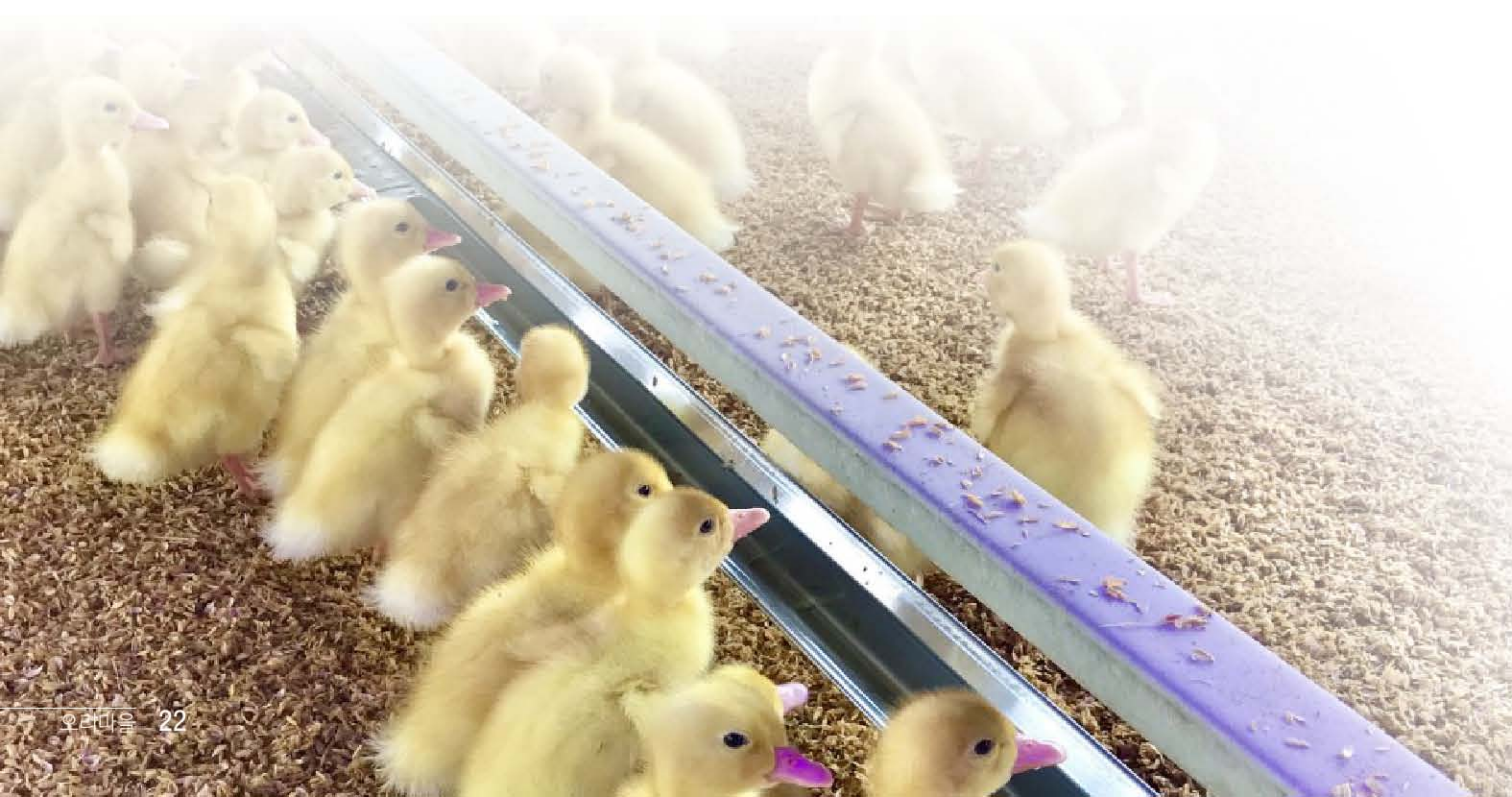
시행착오 있었지만 주민 도움으로 무사 정착 받은 사랑 되돌려 드리려 마스크 5만 장 기부

귀농 후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힘을 경험한 적도 있었다. 귀농 첫째 태풍으로 하우스가 무너졌다. 인건비, 자재비 등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손해가 막심했다.

마을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과제였다. 그들을 '외지인'으로 여기던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 마을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다.

농장 운영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 비닐하우스 16동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농장' 6동으로 시작해 '행복농장' 10동을 확장했다. 소망농장에서는 오리 1만7000수, 행복농장에서는 2만7000수 가량을 키운다.

부부는 지난해 부안군청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했다. 마을 어른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 보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고 싶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마스크 전달을 부탁했다.





귀농 후 얻은 것? 여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귀농 앞서 충분한 시장조사와 자금 마련 필수”

귀농 후 달라진 점을 물었다. 주은주 대표는 시간적 여유를 가장 큰 변화로 뽑았다. “서울에 있을 때나 직장 생활할 때와 비교해 조급함이 없어요. 예전엔 바쁘게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고 그 흐름을 쫓아갔어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족 간 모이는 시간도 저절로 많아지고요.”

김창수 대표는 정년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일찍 귀농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고 덧붙였다.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조언 한 마디를 부탁했다. 부부는 귀농 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귀농은 도시 생활과는 전혀 달라요. 도시에 맨손으로 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하루하루 살 수 있지만요, 시골은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충분히 조사하고 계획한 후 귀농해야 해요.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했다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김 대표는 웃으며 답했다. “오리고기가 치킨만큼 대중화되면 좋겠어요. 영양가도 많고 맛있잖아요. 젊은 층에서도 오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출처] 네이버 팜 더농부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오리 수급안정을 위해 청정지역 유지되어야
방역 관련 행정 일원화로 효율성 높여야

한국오리협회 경북도지회
도재환 지회장

“지난해 11월 HPAI 발생으로 인해 오리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해외에서 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올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오리협회 경북도지회 도재환 지회장은 지난해 HPAI로 인해 겪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오리농가들의 대부분이 호남지역과 충북지역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농가수가 적은 경북지역의 경우 방역은 물론 정책적으로 사각지대로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 지회장은 지난해 11월말 HP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오리관련 종사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과도한 규제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 필요

”

당시 도 지회장은 출하를 위해 상차 작업 중이었는데 작업 중 이동제한 명령이 발동된 것이다. 이로 인해 충북에 위치한 도압장까지 상차된 물량만이라도 입고 시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도 지회장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해 상차 작업을 중단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다시 작업을 해야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낭비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도 지회장은 “과도한 이동제한으로 인해 올인올아웃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질병 확산을 위한 방역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찬성하지만 현장과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이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농가 차별적 대우 개선 필요

이와 함께 오리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리농가수가 적다보니 같은 가금류인 닭에 비해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 지회장은 “HPAI발생으로 타 시도 및 시군으로부터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됐다. 그런데 경북도에서 닭은 발생 시군에서의 반입을 금지시킨 반면 오리는 발생시도로 반입 금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 것이다. 다행히 형평성의 문제와 철저한 방역 조치를 약속하며 닭과 마찬가지로 발생시군으로 반입금지 범위를 좁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오리농가가 상대적으로 수가 적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도 지회장은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오리농가수가 적은 만큼 발생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밀집지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 때문에 오리산업 전체를 생각하면 HPAI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사육농가가 적은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유지시켜 오리 사육을 분산시켜야만 오리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게 도 지회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오리농가수가 적어 지자체 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이는 오리협회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오리농가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존 농가들 만이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방역관련 행정 일원화 필요

“HPAI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전화가 불이 난다. 지자체는 물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 예찰전화가 수시로 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리협회에서도 예찰전화를 하는 통해 정신이 없을 정도다”라는 도 지회장은 행정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지만 대답은 다 똑같은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곳으로 일원화 시켜 그 정보를 공유하면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도 지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뉴스를 보니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진단 결과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PAI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앱을 개발해 농가들이 스스로 매일 체크하고 이를 방역관련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 지회장은 농가를 살리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PAI는 분명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철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통한 통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